

이 선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프랑스어 부사에 대한 연구

- -ment 부사를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박수정

# 프랑스어 부사에 대한 연구

- -ment 부사를 중심으로 -

이 선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박수정

# 인 준 서

박수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이 연구는 부사의 독립적인 영역과 기능을 파악하고 특히 접미사 -ment를 가진 부사들의 기능과 속성을 통사적, 의미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통 문법에서 부사는 다른 품사를 수식하는 기능으로 설명되었으나 실제로는 문장 내에서 독립된 하나의 품사로서 기능을 한다.

이 논문에서는 무엇보다 -ment를 가진 부사들이 문장 내에 문맥, 발화 행위, 상황 등과 같은 언어 외적인 요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 현상을 설명할 것이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선 부사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전통 문법학자인 Grévisse의 부사 연구를 살펴본다. 그는 부사를 의미적으로 시간 부사, 장소 부사, 양태 부사, 양이나 강도 부사, 의심 부사, 강조 부사, 부정 부사의 7가지로 하위분류 한다. 하지만 Grévisse의 분류 기준인 의미sens는 그 유동성으로 인해 하위분류의 기준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3장에서는 의미론적 관점으로 본 부사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의미론적 관점에서 부사는 문장 내의 한 가지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 내용과 관련되어 문장의 진, 위를 결정짓는 문장 부사로 분류된다. 이분법적인 분류를 바탕으로 한 Mørdrup의 부사 연구는 성분 부사만을 대상으로 한 Grévisse의 분류보다 문맥 차원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문장 부사를 접속 부사와 분리 접속 부사로 이분화하였다. Schlyter의 경우, Mørdrup의 분류와는 달리, 부사를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7가지로 하위분류 한다. 그의 하위분류 중에서 언술행위 부사adverbes d'énonciation는 언술행위, 상황과 같은 언어 외적인 요소를 결부시켰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언급된 언술행위 부사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언술행위에

대해 알아보고 언술행위 속에서 부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분석해 본다. 접미사 -ment를 가진 부사들을 Guimier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고, Ducrot와 Nølke가 제안한 부사의 분류 속 문맥 부사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5장 결론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고 종합해본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II. 전통 문법에서의 부사 .....	3
1. 부사의 정의 및 특성 .....	3
1.1 부사의 특성 .....	4
1.2 부사의 위치 .....	7
2. Grévisse의 부사 연구 .....	10
III. 의미론적 관점으로 본 부사 .....	13
1.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 .....	15
1.1 성분 부사 .....	15
1.2 문장 부사 .....	17
2. Mørdrup의 부사 연구 .....	18
2.1 접속 부사 .....	19
2.2 분리 접속 부사 .....	21
3. Schlyter의 부사 연구 .....	23
IV. 화용론적 관점으로 본 부사 .....	27
1. 언술행위이론 .....	27

2. Guimier의 부사 기능에 대한 연구 .....	29
2.1 술어 내적 부사와 술어 외적 부사 .....	29
2.2 문장 내적 부사와 문장 외적 부사 .....	41
3. Ducrot와 Nølke의 부사 연구 .....	54
V. 결론 .....	62
참고문헌	
Résumé	

## I. 서 론

부사는 문장이나 다른 품사를 수식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 주는 품사로 정의되어 그 의존적인 특성만 부각되어 왔다. 따라서 부사의 다양한 기능과 용법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의미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사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부사는 문장에서 내용이나 성격을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 부사의 중요성에 비해 그 특성과 기능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부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그 속성을 알아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사의 독립적인 영역과 기능을 파악하고 특히 접미사 -ment를 가진 부사들의 기능과 속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전통 문법에서 부사는 독립적인 영역보다는 의존적이고 기능적인 특성을 주로 다뤘었다. 즉 부사의 다양한 용법과 기능은 소홀히 되고 불변화 요소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부사는 문장 내에 문맥, 발화 행위, 상황 등과 같은 언어 외적인 요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문장 내에서 부사의 특성과 분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전통 문법에서는 부사의 역할을 문장 내에서 국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부사의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따라서 발화 상황이나 문맥을 고려한 부사의 주관성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 문법적 관점에서의 부사를 Grévisse의 부사 연구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의미론적 측면에서 접근한 Mørdrup과 Schlyter의 부사 분류를 통해 부사의 역할을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Mørdrup은 부사를 문장 차원에서 벗어나 문맥과 문맥 상황을 고려한 부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사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화용론적 측면에서 부사가 문맥과 발화 행위와 같은 언어 외적 요소에 따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언술행위 속에서 부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접미사 -ment를 가진 부사들을 Guimier의 이론을

통해 살펴볼 것이며, Ducrot의 언술행위 부사와 Nølke가 제안한 부사의 분류  
속 문맥 부사에 대해서도 분석해본다.

본 논문에서는 부사의 다수 형태인 -ment를 지닌 부사에 대해 전통 문법보  
다 확대된 기능을 하는 부사의 속성과 용법을 기술하도록 하겠다.<sup>1)</sup>

---

1) 본 논문에서 사용된 예문들은 문현정(1999), 『부사 분류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 Geuzdhajt(2000), Adverbes en -ment et opérations énonciatives, C. Guimier(1996), Les adverbes du français: le cas des adverbes en -ment등의 예문을 재인용하였거나 사전에서 인용하였다.

## II. 전통 문법에서의 부사

전통 문법에서 부사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중심 역할을 하는 서술어를 수식 한정하는 단어로 정의된다. 따라서 문장의 이해와 표현에 있어 부사는 통사 의 미론적으로 문장에 영향을 미치며, 부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담화의 문법적 관계나 의미 관계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J. Feuillet에 따르면, 전통 문법학자들에게 부사를 정의하는 것은 항상 두려운 문제로 생각되었고, 그들은 부사를 단지 품사의 쓰레기통으로 여겼었다.<sup>2)</sup> 하지만 부사를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 단어들이 모여 있는 품사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사는 문장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며 그 용법을 분류할 수 있기에 주요한 품사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부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다른 품사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며, 부사에 대한 견해도 언어학자마다 분분하여 그 분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1. 부사의 정의 및 특성

부사는 동사, 형용사 혹은 또 다른 부사와 결합하여 그 의미를 변화시키는 불변화사이다. 부사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sup>3)</sup>

이처럼 부사는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comment, quand, où로 된 의문문에 답하는 단어로 정의된다.

부사는 다른 품사 및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 뿐 아니라, 상의 가치, 방식, 시간, 담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상의 가치, 방식, 시간, 담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부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

2) Jack Feuillet(1990:58), Adjectif et adverbe: essai de classification

"La définition de l'adverbe a toujours posé de redoutables problèmes aux grammairiens. Certains le conservent par tradition, bien qu'ils ne soient pas dupes de son caractère "fourre-tout"..."

3) H. Gezundhajt(2000), Adverbes en -ment et opérations énonciatives, p.1

"Mot invariable que l'on joint à un adjectif, à verbe ou à un adverbe pour en modifier le sens. L'adverbe peut aussi modifier une proposition tout entière."

(1) Tout à coup, les fenêtres se sont fermées.

(2) Il pleut doucement sur la ville.

(3) Brusquement, la porte s'est fermée.

(4) Ils sont vraiment compliqués.

또한 부사는 문장 내에 문맥, 발화 행위, 상황 등과 같은 언어 외적인 요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는 제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1.1 부사의 특성

부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사는 의존적인 특성이 있다.

우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5) Elle se coiffait, s'habillait, se parait ridiculement.

<Maupassant>

이 때, 부사는 동사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며 그 사행을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한다.

(6) Elle est assez jolie, ton idée!

부사는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7) Nous nous sommes bien souvent rencontrées.

부사는 전치사 구를 수식하기도 한다.

(8) Elle arrivera exactement à midi.

peu, trop, assez와 같은 몇몇 부사는 동사와 형용사를 동시에 수식하기도 한다.

(9) a. Il a trop bu.

b. C'est trop cher.

둘째, 부사는 불변화사이다. 4)

부사는 성, 수, 인칭에 따라 형태의 변화가 없는 단어로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형식을 갖는다.

(10) Ils chantent haut.

명사의 성, 수에 일치해야 하는 형용사와 구분 된다.

(11) Elles sont hautes.

또한, 불변화사인 부정법, 접속사와 문장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

4) C. Guimier(1996), Les adverbess du français : le cas des adverbess en -ment, p.2

"L'adverbe est un mot invariable qui est apte à servir de complément à un verbe, à un adjectif, à un autre adverbe."

셋째, 부사는 자동사적인 특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부사는 자신의 보어를 가지지 않는다. 이는 불변화사이면서 의존적인 특성을 지닌 전치사와 구분되는 특성이다. 하지만 때때로 아래와 같이 전치사와 결합하여 보어를 갖는 경우도 있다.

(12) Le jour est près de paraître.

마지막으로 부사는 위치가 유동적이다.

(13) a. Il observe attentivement la scène.

b. Il observe la scène attentivement.

하지만 때때로 부사의 위치 이동은 의미 변화를 동반하기도 한다. 보통 수식하는 품사의 앞에 위치하여 의미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14) a. Paul a mangé même des gâteaux.

b. Paul, même, a mangé des gâteaux.

## 1.2. 부사의 위치

문장 내에서 부사는 고정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위치의 유동성에 있어서도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 보통 부사의 위치는 수식하는 단어에 따라 달라진다. 그 일반적인 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사는 수식하는 단어 앞이나 뒤에 위치한다.

(15) Elle est affreusement pâle.

(16) Il écrit bien.

둘째, 단순 시제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동사 뒤에 위치한다. 모든 -ment 부사들은 이 위치에 올 수 있다.

(17) La télévision parle fréquemment de la fraude fiscale commise par des fonctionnaires.

하지만 때때로 동사와 떨어진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

(18) Il observe la scène attentivement.

셋째, 동사에 과거 분사가 수반되거나 부정법과 쓰일 경우, 부사의 위치는 과거 분사 또는 부정법 앞에 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 분사를 동반한 복합 시제는 부사가 과거 분사 앞에 오지만,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의 경우 과거 분사 뒤에 위치한다. 또한 부정 작용 ne-pas과 함께 쓰인 부사는 부정 작용의

앞, 뒤에 올 수 있으나 보통 앞에 위치한다.

(19) Cet expert s'est très rarement trompé dans ses estimations.

(20) Il est allé ailleurs.

(21) Il est parti hier.

(22) Ce n'est absolument pas vrai.

넷째, 문장 부사<sup>5)</sup>는 위치를 이동하여도 의미가 변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장 부사 중에서도 어떤 부사는 문두에 올 경우 의미가 어색할 수 있다.

(23) a. Heureusement, je sais le français.

b. Je sais le français, heureusement.

(24) \* Évidemment, ça ne te plaît pas?

다섯째, 부사는 문중에 삽입 또는 분리되어 사용될 수 있다.

(25) Il a regardé, finalement, la scène.

(26) Il l'a observé, attentivement, tous les jours.

여섯째, 부사는 분열문에서 초점이 되는 위치에 올 수 있다.

---

5) 문장 부사는 Martin에서부터 나온 개념으로 3장에서 다시 보도록 한다.

(27) C'est prudemment que Paul conduit.

일곱째, 앞서 언급한 위치 이외에도, 부사는 의문문에 대한 답으로 쓰일 수 있다.

(28) Est-il parti?

-Évidemment.

모든 부사에서 제외되는 유일한 위치는 접어 대명사와 동사 사이에 오는 위치이다.

(29) \* Il probablement vient.

## 2. Grévisse의 부사 연구

전통 문법학자인 Grévisse는 언어 이론의 최상위 단위를 문장으로 보고, 부사는 문장 내에서 다양한 의미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부사를 7가지로 분류하였다. Grévisse의 의미 기준에 따른 하위 분류는 시간 부사, 장소 부사, 양태 부사, 양이나 강도 부사, 의심 부사, 강조 부사, 부정 부사이다. 6)

시간 부사adverbes de temps에는 alors, aujourd’hui, avant, déjà, demain, depuis, enfin, hier, maintenant, quand, souvent, tôt 등이 있다.

(30) On va aller au cinéma demain.

장소 부사adverbes de lieu에는 ailleurs, autours, dehors, dedans, ici, loin, près, partout 등이 있다.

(31) Venez ici et asseyez-vous.

양태 부사adverbes de manière에는 ainsi, bien, comment, mal, mieux, plutôt, ensemble가 여기에 속한다.

(32) On a dansé ensemble.

양이나 강도 부사adverbes de quantité et d’intensité에는 assez, autant, beaucoup, davantage, encore, moins, plus, que, si, tant, très, tout 등이 있다.

---

6) 문현정(1999), 『부사 분류에 대한 연구』에서 재인용함

(33) Il a essayé davantage.

의심 부사adverbes de doute에는 apparemment, peut-être, probablement 등이 있다.

(34) Peut-être il arrivera en retard.

강조 부사adverbes d'affirmation에는 assurément, certainement, bien, certes, sans doute, vraiment 등이 있다.

(35) La Chine est certainement l'étape la plus importante du voyage de Barack Obama en Asie.

<le fait du jour, 11. 05 일자>

부정 부사adverbes de négation에는 ne-pas, ne-rien, ne-point, ne-jamais, ne-personne, nullement 등이 있다.

(36) Je ne le veux nullement.

Grévisse의 분류는 하위 부류들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같은 부사가 두 가지 부류에 동시에 속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사의 분류로는 불충분하지 못하다.

(37) Il l'a bien fait.

(38) Je le sais bien.

예를 들어, (37)에서 bien은 정도 부사에, (38)에서는 강조 부사에 속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의 분류가 불충분한 이유는 부사 연구를 문장 차원으로 제한하고, 분류 기준을 부사의 의미에만 국한시켰기 때문이다. 수많은 부사들이 의미의 유동성을 지니기 때문에 의미로만 정확하게 구분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발화 상황이나 문맥을 고려했을 때 부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Ⅲ. 의미론적 관점으로 본 부사

Nølke에 따르면 부사 분류에 대한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7)</sup>

첫 번째 시기의 부사에 대한 연구는 전통 문법학자로 Grévisse와 Iha Hansén이 대표적인데, 그들의 분류는 매우 직관적이고, 그 기준 또한 함축적implicite이다. 2장에서 살펴본 Grévisse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부사를 그 의미에 따라 분류했다. Hansén(1982)은 이 시기에 술어 부사adverbe prédicatif에 대한 연구를 그의 저서에 남기기도 하였다.

두 번째 시기에는 동사와의 양립 가능성이라는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부사를 분류하였다. 즉, 이 시기에는 문장 내에서 부사가 취하고 있는 기능과 의미가 분류의 기준이 되었다.

(39) Il travaille soigneusement.

(40) \* Il travaille nécessairement.

위의 예에서 부사 soigneusement은 그 의미로 인해 동사 travailler와 양립할 수 있지만, nécessairement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시기의 분류 기준으로는 다른 부류로 분류된다.

Nilssen-Ehle은 성분 부사adverbe de constituant에 대한 연구를, Hansén은 -ment 부사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Blumenthal은 '메시지message의 통사론'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부사의 영향권portée과 부사의 기능에 따라 분류하기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는 부사가 미치는 영향권에 따라 사실fait, 언술énoncé, 언술행위énontiation를 수식하는 부사로 구분하였다.

---

7) H. Nølke(1993), Le regard du locuteur, p.17 참고.

두 번째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 학자로는 Nilsson-Ehle, Ernest, Blumenthal, Co Vet(1980)등이 있다. 이 시기에는 부사와 동사가 양립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와 부사가 동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부사에 대한 연구 시기가 활발했던 때는 세 번째 시기로 Noam Chomsky가 변형 생성 문법적 입장에서 부사의 분류를 시도한 다음부터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된 연구들 중에서, 특히 Ray. J. Jackendoff(1972)와 그의 뒤를 이어 Irena Bellert(1977)는 영어에서 -ly부사들을 연상시키는 분석들을 제안했다. 이 시기에 Martin(1974)은 부사의 형태상 분류를 시도하였고, 문장 부사adverbe de phrase의 분류 기준을 명시하고 분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Martin이후에는 Mørdrup과 Schlyter, Arrivé 등 부사 분류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네 번째 시기에는 의미론적 관점에서만 분류했던 부사를 화용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시기에 Ducrot와 Nølke는 부사의 전통적 분류인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의 이분법적인 분류에서 예외의 경우를 포함하는 다분화된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들은 문장 부사를 문맥 부사adverbial contextuel라고 지칭하며, 비시공간적 문맥의 요소들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그들은 부사가 언어 외적인 요소에 관여하여 부사가 언술행위와 언술에 대해 미치는 영향권까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부사들의 분류는 이 시기들을 거쳐 이분법적으로 머물렀던 분류가 여러 관점에서 분류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Martin에서부터 시작된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고, 전통 문법학자인 Grévisse이후에 나타난 Mørdrup과 Schlyter의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

전통 문법과 현대 문법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부사의 기능에 따라 다양한 분류를 시도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부사의 하위 부류들을 일관성 있게 분류하고자 노력하였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부사의 하위 부류로 가장 일반적으로 성분 부사(adverbe de constituant<sup>8)</sup>)와 문장 부사(adverbe de phrase)에 대해 언급한다. 이들의 이분법적 부사 분류는 용어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부사의 기능과 특성에 있어 거의 의견이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부사는 문장 내에서 걸림(incidence)과 부사의 영향권(portée)으로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로 나눌 수 있다. 성분 부사는 문장의 한 성분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고 문장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영향을 미친다.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Molinier에 의해 적용된 문장 내에 위치 이동성(mobilité), 초점화(focalisation), 부정 작용(ne-pas)과의 양립성, 분열문(c'est-que) 내에서 부사와 초점<sup>9)</sup>의 양립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sup>10)</sup>

### 1.1 성분 부사

우선, 성분 부사의 경우 문장 내에서 문장의 한 성분인 동사, 형용사, 전치사구, 혹은 다른 부사를 수식하고 명사의 보어로 쓰인다. 따라서 부사는 수식하고자 하는 성분 바로 앞이나 뒤에 위치하게 되고 그 위치의 이동이 한정 되어 있다.

---

8) 본 논문에서는 성분 부사(adverbe de constituant)를 양태 부사(adverbe de manière)와 술어 부사(adverbe de prédicat)로 불리는 부사 유형과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9) 초점이란 특수한 유형의 화행인 초점화(focalisation)의 결과물이다. 초점은 언술행위의 다른 국면들처럼 언어적 표지로 통사적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정의 초점, 의문의 초점, 명령의 초점, 분열문의 초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H. Nölke (1993:38-42)

정원경(2001), 『문장부사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재인용함.

10) Martin은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를 2가지 기준으로 구분한다.

① 부정 작용(ne-pas)과의 양립성

② 분열문(c'est-que)내에서 부사와 초점의 양립성

(41) Il se tourna vers ma nièce, sourit discrètement.

<Vercore>

예문 (41)의 경우, discrètement은 동사 뒤에서 동사 sourit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로 쓰였다. 위치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42) \* Discrètement, il se tourna vers ma nièce, sourit.

성분 부사는 분열문 c'est - que 구문에서 부사 자체에 대한 초점화는 가능하지만, 분열문의 초점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43) C'est soigneusement que Marie a arrangé les fleurs dans les vases.

(44) \* C'est soigneusement Marie qui a arrangé les fleurs dans les vases.

또한 성분 부사는 의미적으로 부정ne-pas의 영향권에 속할 수 있다.

(45) Marie n'a pas soigneusement arrangé les fleurs dans les vases.

(45)의 예에서 'Marie는 꽃 병 속에 꽃들을 세심하게 정리하지 않았다'로 해석된다. 따라서 부사 세심하게soigneusement는 '정리하지 않았다'라는 부정된 술어 전체에 걸리므로 부정 ne-pas의 영향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1.2 문장 부사

문장 부사는 문장 전체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며, 문장의 다른 어떤 요소와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문장 부사는 문장의 서두에 오며,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46) Sincèrement, vous ne voulez pas venir avec nous?

하지만 분열문에서 초점화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성분 부사와는 반대로 *c'est - que* 분열문 내에서 초점과는 양립할 수 있다.

(47) \* *C'est sincèrement que vous ne voulez pas venir avec nous.*

(48) *C'est sincèrement vous qui ne voulez pas venir avec nous.*

문장 부사의 경우 위치의 이동이 가능하다.

(49) ①, Pierre, ②, a , ③, accepté de faire ce travail, ④. (évidemment)

(49)의 예에서, 문장 부사는 문장 전체의 의미 변화 없이 ①,②,③,④의 위치에 올 수 있다. ①의 위치에 올 경우, '분명히 Pierre는 이 일을 하는 것을 승낙 했다'로, ②,③의 경우, 'Pierre는 분명히 이 일을 하는 것을 승낙 했다'로 해석된다. 또 ④의 경우, 'Pierre는 이 일을 하는 것을 승낙 했다, 분명히'로 해석된다. 따라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의미상의 변화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장 부사는 전체 의문문에 대한 답으로 사용될 수 있다.

(50) Auras-tu fini ce travail à temps?

-Certainement/Heureusement.

마지막으로 문장 부사는 부정 작용 ne-pas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51) Pierre n'a pas évidemment accepté de faire ce travail.

지금까지 일반적인 부사 분류의 형식적인 특성과 부정문, 의문문, 분열문 속에 나타난 그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의 이분법적인 분류 기준은 부사의 기능을 충분히 설명하고 분류하는데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 최근에는 부사가 품사나 문장에 끼치는 영향 외에도 발화 자체나 발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으로 연구가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도 속에 부사의 기능과 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 2. Mørdrup의 부사 연구

Grévisse가 성분 부사를 의미적으로 분류하는데 그쳤던 반면, Mørdrup은 통사적 기능과 의미를 연관시켜 분류하고자 하였다. Mørdrup의 연구에서부터 부사의 범위를 문맥context과 담화discours 차원으로 넓혔다.

Mørdrup은 -ment 부사를 양태 부사adverbe de manière<sup>11)</sup>와 문장 부사adverbe de phrase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

양태 부사는 문장 내에 다른 한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로 ainsi, comment, plutôt, bien, mal, quasi, mieux, comme, ensemble, vite 등이 여기에 속한다.

---

11) Mørdrup은 성분 부사와 같은 개념으로 양태 부사adverbe de manière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H. Nølke(1993:66) 재인용함.

(52) Le raisin est quasi mûr.

문장 부사는 문장을 담화 속에 삽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시 두 범주로 구분한다. 이 때, 문장의 접속사적인 기능을 하는 부사를 접속 부사adverbes conjonctifs로, 문장이 문맥 내에서 기능하는 경우를 분리 접속 부사adverbes disconjonctifs로 명칭 한다.

## 2.1 접속 부사

접속 부사는 부사가 접속사 기능을 하는 경우이며, autrement, alors, donc 등이 여기에 속한다.

Mørdrup에 따르면 접속 부사는 명령문 앞에 위치하며, 전체 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분리 접속 부사와 구분될 수 있는 차이점이다.

(53) Donc, va-t'en!

(54) Marie est-elle fasciste?

- \* alors, oui!

접속 부사들은 다시 의미에 따라 반의, 양보, 결과, 재표명, 동등, 증가를 나타내는 부사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

반의 부사adverbes contraires에는 inversement, contrairement, en revanche 등과 같은 부사들이 있다.

(55) Contrairement, elle est gentille.

양보 부사에는 néanmoins, malgré tout, cependant, pourtant과 같은 부사들이 속한다.

(56) Malgré tout, il est réussi.

결과 부사adverbes consécutifs에는 aussi, en conséquence, donc, c'est pourquoi, conséquemment 등이 있다.

(57) Conséquemment, il a consenti au mariage avec plaisir.

à ce propos, à ce sujet, à cet égard 등이 재표명 부사adverbes réformultifs이다.

(58) On va discuter à ce sujet.

동등 부사adverbes égalisateurs도 접속 부사에 속한다. pareillement, semblablement, également 등이 있다.

(59) Également, on travaille trente cinq heures par semaine en France.

증가를 나타내는 부사에는 en outre, de surcroît, de plus 등이 있다.

(60) Elle est jeune fille intelligente et gentille de surcroît.

## 2.2 분리 접속 부사

분리 접속 부사adverbes disjonctifs는 문맥 내에서 기능을 하는 부사로, 말화 행위를 수식하는 화법의 분리 접속 부사adverbes disjonctifs de style와 명제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의 분리 접속 부사adverbes disjonctifs d'attitude로 나뉜다.

화법의 분리 접속 부사는 직접 화법 문장을 간접 화법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다.

(61) Hônnetement, Paul est indéfendable.

= Je te dis hōnnetement que Paul est indéfendable.

위 예에서처럼, 이 부사들은 화자의 생각이나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를 명시해 주며, 문장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은 전통 문법적 관점에서는 기술되지 않은 부사의 특성이다. 이 부사들은 의미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장의 내용contenu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말화 형식에 대한 부가적 정보를 제공한다. franchement, honnêtement, sincèrement, simplement, sérieusement, confidentiellement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이 부사들은 후에 Schlyter나 Arrivé가 제시한 관계 부사 혹은 언술행위 부사adverbes de relation ou d'énonciation와 관련이 있다.

한편 태도의 분리 접속 부사는 명제의 긍정적 진리치나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부사이며, 네 개의 하위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습관 부사, 평가 부사, 양상 부사, 주어 지향적 태도 부사가 그것이다.

습관 부사adverbes d'habitude는 현재 시제와 반과거 시제의 양립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시제와는 양립이 불가능하다. 이 부사들은 습관 및 일반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communément, généralement, habituellement, invariablement,

ordinairement, rituellement, usuellement, en général, d'habitude 등이 있다.

(62) En général, je prends le petit déjeuner à 7 heures.

평가 부사는 Il est Adj que P. 동의문을 만들 수 있다.

(63) Curieusement, il n'a pas fâché cette nuit.

=Il est curieux qu'il n'ait pas fâché cette nuit.

양상 부사adverbes modaux는 apparemment, assurément, certainement, effectivement, évidemment, fatalement, inconstablement, indéniablement 등이 있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특성이다. 이들은 주로 동사 뒤에 위치하지만, 수동태 및 긍정문에서는 문두에 위치할 수 있다. 또한 부정문과 같이 쓰일 수는 없지만 초점화는 가능하다. 이 부사들은 Il est Adj que P. 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때 부사는 que이하 문장 내용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나타낸다.

(64) a. Est ce-que Paul a raison?

-Évidemment.

b. Évidemment, Paul a raison.

= Il est évident que Paul a raison.

주어 지향적 태도 부사adverbes d'attitude orienté vers le sujet는 문장의 행위 주체자 즉, 주어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보여주는 부사이다. 이 부사들은 동사만을 수식하지 않고 문장 전체의 내용과 주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특징이다. adroitement, bêtement, intelligemment, judicieusement, lâchement,

prudemment, sagement 등이 여기에 속한다.

(65) Sottement, Paul n'a pas demandé cette question.

또한 분열문 c'est - que 구문에서 초점의 위치로도 올 수 있다.

(66) a. C'est prudemment que Marie est partie.

b. C'est sottement que Paul a demandé cette question.

앞서 말한 내용이 Mørdrup의 부사에 대한 분류이며 Mørdrup의 양태 부사와 문장 부사의 이분적인 분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Schlyter는 새로운 부사 분류를 시도하였다.

### 3. Schlyter의 부사 연구

Schlyter는 문장 속에서 부사들의 위치가 의미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즉, 부사의 용도는 문장 내에서 부사의 위치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부사의 위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칙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Schlyter는 부사를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분류하였다. 정도 부사, 양상 부사, 사건 부사, 배경 부사, 문장 부사, 관계 혹은 언술행위 부사, 제한 부사이다. Schlyter의 문장 부사 adverbess de phrase는 앞서 Mørdrup의 문장 부사보다 좁은 의미의 부사이다. Mørdrup의 문장 부사의 범주에 Schlyter의 문장 부사, 관계 부사 또는 언술행위 부사, 제한 부사가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도 부사, 양상 부사, 사건 부사, 배경 부사는 성분 부사의 범주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각 하위 부류들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도 부사adverbes de degré에는 tellement, extrêmement, parfaitement 등이 있다. 이 부사들은 형용사, 부사, 동사의 과거 분사 앞에 온다. 문두에는 쓰이지 않으며, 의미상 부정의 영향권에 속하지 않고 문장의 초점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 (67) a. Le concert a parfaitement terminé.  
b. Le concert n'a pas parfaitement terminé.  
c. \* C'est parfaitement que le concert a terminé.

양상 부사adverbes modaux에는 attentivement, soigneusement, joliment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동사의 뒤에 오고 문두에는 쓰이지 않는다. 양상 부사는 의미상 부정 작용ne-pas의 영향권에 속하며 문장 내의 초점이 될 수 있다.

- (68) a. Mon professeur a examiné attentivement ce problème.  
b. Mon professeur n'a pas examiné attentivement ce problème.  
c. C'est attentivement que mon professeur a examiné ce problème.

사건 부사adverbes d'évènement에는 rapidement, brusquement, rarement, constamment 등이 있다. 이들은 동사의 뒤에 놓이며, 문두에 쓰이기도 한다. 의미상 부정의 영향권에 속하지 않으며 초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 (69) a. Brusquement, la porte a fermé.  
b. Brusquement, la porte n'a pas fermé.  
c. \* C'est brusquement que la porte a fermé.

배경 부사adverbes de cadre는 문장 내에 위치, 상, 시간적 영향권을 정하는 역

할을 한다. 문장에서의 위치가 자유로우며, 부정의 영향권에 속하고 문장에 초점이 될 수 있다. *logiquement, actuellement, généralement* 등이 여기에 속한다.

- (70) a. Il a résolu ce problème *logiquement*.  
b. Il n'a pas résolu ce problème *logiquement*.  
c. C'est *logiquement* qu'il a résolu ce problème.

문장 부사 *adverbes de phrase*는 부정문과 긍정문의 문두에 쓰일 수 있으며, 초점이 될 수는 없다. *évidemment, heureusement, probablement, nécessairement* 등이 있다.

- (71) a. *Evidemment*, Pierre est venu.  
b. \* C'est *évidemment* que Pierre est venu.

관계 부사 혹은 언술행위 부사 *adverbes de relation ou d'énonciation*는 문장 내에서, 문맥, 언술행위, 상황 등과 같은 요소와 관련이 있다. *franchement, sérieusement, simplement, justement* 등이 있으며, 이 부류에 속하는 부사들은 다른 부류에도 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ranchement*은 문장 부사의 부류에도 속할 수 있다.

- (72) *Franchement*, Paul n'est pas génial.

문두와 문미 또는 문장의 중간 위치에 놓일 수 있으나 분열문 *c'est - que*의 초점이 되지 않는 못한다. 이 부사들은 언술 형태에 대한 화자의 입장을 보충하거나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를 명시해 준다. 또 이 부사들은 문장의 내용을 청

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명시한다.

(73) a. Paul n'est pas franchement génial.

b. \* C'est franchement que Paul n'est pas génial.

마지막으로 제한 부사adverbes restrictifs가 있다.

이 부사들은 명사 및 전치사구 앞 또는 뒤에 놓이며 분열문의 초점이 될 수 없다. également, justement, simplement, exactement 등이 있다.

(74) a. Il va partir exactement à 7 heures.

b. \* C'est exactement qu'il va partir à 7 heures.

Schlyter의 부사 기능에 대해 살펴본 것과 같이, 관계 부사 혹은 언술행위 부사와 제한 부사는 언어 외적인 요소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보았던 문장만을 대상으로 한 의미론적인 관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보다 새로운 관점으로 이 부사들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Ⅲ. 화용론적 관점으로 본 부사

이 장에서는 의미론적 관점에 국한하여 부사를 분류한 점을 보다 더 넓은 이해를 위해 화용론적 관점에서 부사의 기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용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의미론이 문장phrase를 대상으로 명제 내용의 진리 조건을 연구하는 분야라면, 화용론은 언술enoncé를 대상으로 언술행위상의 언술력을 논증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화용론은 순수한 언어 내적 구조에만 국한되지 않고 언어 사용상의 폭 넓은 기능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화용론적 관점은 의미 영역을 언술행위에서 작용하는 지시 기능 및 행위 개념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담화상에서의 화자와 청자의 상호 작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화용론적 입장에서 부사는 언술적 문맥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위해 언술행위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언술행위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화용론자들의 입장에서 부사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언술행위이론

앞서 보았듯이, 의미론은 문장을 대상으로, 화용론은 언술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분야이다.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언어의 의미 연구 분야로서 Ducrot는 언어의 의미 현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이들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Ducrot에 따르면, 문장 차원의 의미 체계signification와 언술 차원의 의미sens가 언술행위acte d'énonciation를 통해 언어적 실현이 완성된다고 한다.<sup>12)</sup>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문장과 언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문장은 담화 상황으로부터 분리된 추상적 이론적 언어 실체이며, 동시에 통사

---

12) 정원경(2001), 『문장부사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재인용함.

규칙에 따라 연결된 단어들의 집합이다. 언술이란 구체적인 담화 속에서 화자에 의해 실현된 문장으로서, 화자가 말하고 청자가 들을 수 있는 문장의 개별적 실현이다. 언술행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언술행위란 한정된 상황에서, 언술체를 결과로 가지는 생산 활동의 개인적 행위이다” 13)

그 용어를 살펴보면, 이들의 차이를 이해하기가 더 쉽다. 용어 언술하다 énoncer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것을 구두 또는 문장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언술énoncé은 무접사 파생어에 의해 명사가 되는 과거 분사 형태이다. 따라서 언술은 언술된 것이고, 결과의 가치를 나타내는 수동적인 것이다. 언술행위énonciation는 언술하다énoncer와 행위를 나타내는 접미사 -ation이 결합된 형태로 언술하는 행동을 나타내며, 모든 언술체의 기초이다. 즉 화자가 한 언술체를 생산하기 위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들의 차이점은, 발생된 것produit과 발생production의 관계와 유사하다. 언술체는 하나의 사건이고, 언술행위의 결과이다. 모든 사건처럼, 모든 언술체는 매번 다르게 나타나고, 따라서 동일한 언술체는 존재하지 않는다.<sup>14)</sup> 다시 말해, 문장이 언술체가 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언어 사용이 개입되는데 이 과정이 언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언술행위 부사는 언어학자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에 따른 언술행위 부사들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3) Jean Dubois et al.(1994)

"L'énonciation est l'acte individuel de production, dans un contexte déterminé, ayant pour résultat un énoncé"

14) H. Nølke(1994), Le regard du locuteur, p.42

"**L'énonciation** est un événement historique qui a lieu à un certain moment et en un certain lieu: c'est l'acte de produire une série de segments linguistiques (par oral ou par écrit) présentée par l'auteur de cet acte comme relativement autonome. **L'énoncé** est le résultat de l'énonciation et est donc comme celle-ci un observable repérable dans le temps et dans l'espace."

## 2. Guimier의 부사 기능에 대한 연구

의미-화용론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Guimier는 부사를 통사적 걸림(*incidence*)과 의미적 영향권(*portée*)을 바탕으로 분류한다. 15)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Guimier는 부사를 술어 내적 부사(*adverbe intra-prédicatif*)와 술어 외적 부사(*adverbe extra-prédicatif*)로 나누고, 의미론적 측면에서 문장 내적 부사(*adverbe endophrastique*)와 문장 외적 부사(*adverbe exophrastique*)로 분류한다. 그의 분류를 통해 부사의 기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6)

### 2.1 술어 내적 부사와 술어 외적 부사

술어 내적 부사는 문장 속에 통합되며, 동사와 함께 서술어를 구성하는 부사이다. 반면, 술어 외적 부사는 문장 속에 통합되지 않고 동사가 아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술어 내적 부사를 통해 동사에 따른 부사의 다양한 범위와 동사와 부사의 의미적인 관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75) Parler lentement

S'ennuyer fermément

Écrire élégamment

위와 같은 표현들은 술어 기능을 하기 위해 주어와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부사는 그 자체로 술어의 구성 요소이다.

---

15) C. Guimier(1996), *Les adverbess du français: le cas des adverbess en -ment*

16) 이 장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Claude Guimier(1996), *Les adverbess du français: le cas des adverbess en -ment*에서 사용한 예문들을 그대로 인용함을 밝혀둔다.

(76) Pierre parle lentement  
s'ennuie fermément  
écrit élégamment

술어 내적 부사의 특징은 다시 의미론적인 측면과 통사론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의미적인 측면에서, 부사는 자체의 특징으로 인해 술어의 다른 구성 요소나 동사, 또는 동사와 필수 보어들에 의해 중요한 선택 제약을 지닌다.

예를 들어, 부사 *mollement*은 서술어 *agiter quelque chose*, *se gonfler*, *tourner* 등과 양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사는 *s'ennuyer*, *se regarder*, *verser des larmes* 등과 같이 쓸 수 없다.

(77) a. Un vent agitait mollement la bordure des tentes en coutil.  
b. Les rideaux se gonflaient mollement autour d'elle.

(78) a. \* Elle s'ennuyait mollement  
b. \* Ils se regardaient mollement  
c. \* Il versait mollement des larmes

이는 부사가 술어의 구성 요소이고, 그 의미가 동사 혹은 보어의 의미 기능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79) Jules chargeait lourdement la voiture.

(80) Marie decorait lourdement la chambre.

(79)에서 부사는 무게에 대한 평가이지만, (80)에서 부사는 미적 특징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 이처럼, 술어 내부에서 부사가 그 의미를 나타내며 따라서 부사는 술어의 필수적인 보어가 된다.

통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술어 내적 부사는 부사의 위치, 부정법infinitif의 사용, 양화 요소들의 영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

술어 내적 부사는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위치한다. 따라서 목적어 없이 자동사나 타동사 바로 뒤에 오게 된다.

(81) Vous profitez imprudemment de ma détresse.

드물지만, 부사가 동사의 목적어 뒤에 오는 경우도 있다.

(82) J'ai entendu cette voix distraitemment.

<Fleutiaux>

(83) Il vous saignait les gens largement, comme des cheveux.

<Flaubert>

위의 예에서 부사 largement의 뒤에 오는 comme des cheveux는 방식을 표현하는 부사의 통합체이며, 부사 자체를 명시하는 통합체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 이 통합체는 주어와 동사가 생략된 비교의 종속 전치사로서 해석 될 수 있다.

Il vous saignait les gens largement, comme des cheveux.

(=Il vous saignait largement les gens, comme Il vous saignait largement des cheveux)

따라서 이 종속절은 부사 *largement*과 서로 연관된 것이 아니라, 술어 군 전체에 관련된다. 자연스럽게 부사 *largement*은 동사 뒤에 오는 일반적인 부사의 위치를 다시 가지게 된다.

동사가 조동사일 때, 술어 내적 부사는 일반적으로 과거 분사의 뒤에 위치한다.

(84) Il avait lu attentivement les comptes-rendus du process Pignon

<M.Droit>

그렇지만 부사가 조동사와 과거 분사 사이에 오는 경우도 있다.

(85) L'expérience est d'ailleurs attentivement suivie à la chancellerie.

<Le Monde>

이는 *avoir beaucoup/peu/trop travaillé*와 같이 양을 나타내는 술어 내적 부사의 위치이기도 하다.

-ment 형태의 술어 내적 부사도 양을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역시 조동사와 동사 사이에 삽입되어진다.

(86) Son mari l'avait abondamment battue.

<Arland>

같은 위치에서, 순수하게 질을 나타내는 부사는 양적인 가치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85)의 예에서도 *attentivement*은 양적인 뉘앙스를 가진다.

술어 내적 부사는 가끔 문장과 분리되어 문장의 끝에 위치하기도 한다. 쓰기에서는 쉽표로 나타나며, 여러 개의 요인들이 분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87) Je mange le riz et les legumes avec les doigts, voracement.

<Le Clezio>

예를 들어, 부사는 부사의 사용을 잊어버리고 다시 상기해낸 경우 동사 뒤에 첨가로 나타난다.

(88) Puis elle se mettait à crier, horriblement.

<Flaubert>

(89) J'ai été chez trois personnes...inutilement!

<Flaubert>

술어 내적 부사와 부정법infinitif의 사용을 살펴보자.

부정법은 술어 내적 부사와 양립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서술어 군을 형성하기도 한다.

(90) Elle mangeait proprement; manger proprement

Il refusa nettement; refuser nettement

술어 내적 부사는 부정법의 뒤에 위치한다. 하지만 가끔 부정법에 선행할 수도 있다. 특히 faire나 laisser 동사에 의해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혹은 양상적인 가치 표현에 의해 작용할 때 그러하다.

(91) Je commence à terriblement me repentir de m'être charge de ta personne.

(92) La réponse qu'il aurait voulu faire se laissait clairement deviner.

술어 내적 부사들은 문장에서 내부의 양화사들의 범위 안에 있다. 양화사는 술어 내적 부사와 술어 외적 부사를 대립시키기도 한다.

(93) Pierre a mangé tous les gâteaux habilement.

(=il a mangé chacun des gâteaux avec habileté).

(94) Pierre a habilement mangé tous les gâteaux.

(=il a eu l'habileté de manger tous les gâteaux).

(93)에서 술어 내적 부사는 양화사의 범위에 포함되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각각의 사행이 Pierre에 의해 실현되어지는 것을 암시하는 사행 <manger un gâteau>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반대로 (94)에서 술어 외적 부사는 양화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부사는 결론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행을 실현하는 방식을 나타내지 않는다. 오히려 부사는 Pierre가 사행에 구속되어 있는 조건을 묘사한다.

하지만 부사의 위치가 항상 해석을 구분하게 하는 요인은 아니다. 동사 뒤에 위치할 경우에도, 문맥이 가능하다면 부사는 술어 외적 부사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구두로 할 때는 어조적인 차이를 통해 술어 외적 부사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술어 내적 부사가 수식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사를 대상으로 하는 술어 내적 부사는 부사 뿐 아니라, 그 논항들 중의 하나를 수식할 수 있다. 이를 동사에 대한 범위, 주어에 대한 범위, 주어와 동사에 대한 범위, 동사와 그 보어에 대한 범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술어 내적 부사를 의미적으로도 방식, 원인, 결과, 방법과 수단, 단계, 시

제, 장소로 나누어 분석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술어 내적 부사에 의해 나타난 의미 효과는 직관적이며 예외를 많이 가진다. 따라서 술어 내적 부사를 의미적으로 분석하기엔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술어 외적 부사들은 술어 내적 부사와의 차이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부사 anxieusement을 예로 들어보자.

(95) La jeune mère regardait anxieusement sa petite fille jouer près de l'eau.

<Mørdrup>

(96) Anxieusement, la jeune mère regardait sa petite fille jouer près de l'eau.

(97) La jeune mère, anxieusement, regardait sa petite fille jouer près de l'eau.

위의 세 문장은 서로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통사적인 면에서 다른 기능을 나타낸다. (95)에서 부사는 술어 내적 부사의 일반적 위치인 동사 뒤에 있으며, 동사의 범위에 포함되고 부정문과 양립할 수 있다. 반대로, (96), (97)에서 anxieusement은 부정문, 의문문, 명령문과 양립할 수 없다.

(98) La jeune mère ne regardait pas anxieusement sa petite fille jouer près de l'eau.

(99) \*Anxieusement, la jeune mère ne regardait pas sa petite fille jouer près de l'eau.

(100) \* La jeune mère, anxieusement, ne regardait pas sa petite fille jouer près de l'eau.

(98)의 anxieusement은 술어 내적 부사로 쓰이며, 따라서 동사를 범위로 하는 술어의 구성 요소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

La jeune mère portait un regard anxieux sur sa petite fille qui jouait près de l'eau.

또한 부사 anxieusement은 술어 군 regarder anxieusement을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술어 내적 부사는 술어의 다른 요소들과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98)에 대한 해석은 젊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가졌고, 물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 딸에 대한 시선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걱정스러운 시선이 어린 소녀가 물가에서 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의미 효과는 술어 내적 부사와 함께, 술어 verbe + adverb가 동사의 다른 보어들이 개입하기 전에 구축되어진다는 사실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술어 내적 부사가 우선적으로 동사와의 확장에 의해 주어를 수식하는 반면, 술어 외적 부사는 우선적으로 주어를 수식한다.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a jeune mère regardant sa petite fille jouer près de l'eau est anxieuse.

술어 내적 부사가 동사 자체에 걸릴 때, 술어 외적 부사는 술어에 걸리며, 정확하게는 주어-술어에 걸린다. 다음과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

a) 술어 내적 부사 : La jeune mère [(regardait anxieusement) sa petite fille

qui jouait près de l'eau]

b) 술어 외적 부사: anxieusement [la jeune mère (regardait sa petite fille jouer près de l'eau)].

결과적으로 두 문장의 차이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느껴지지 않을 정도지만 언어학적인 기능은 서로 다르다. 동사 뒤에 놓인 부사가 술어의 구성 요소라면, 문장 앞에 놓여 분리된 부사는 주어-술어에 걸린다. 두 문장 사이의 차이점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테마 체제 연구이다. 술어 내적 부사가 전형적으로 평언적인 rhématique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술어 외적 부사는 문두에 위치하여 주제의 기능을 확실하게 한다. 즉, 주어진 정보로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는 사행 자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술어의 구성 요소가 아니며, 이러한 부사를 술어 외적 부사라 할 수 있다.

술어 내적 부사는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 위치할 수 없다. 부사가 동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술어 외적 부사는 서술 관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두에 위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술어 외적 부사는 주어-술어 부사와 주어-문장 부사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 우선, 주어-술어 부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동사의 앞에 위치한다. 주어와 동사 사이에 삽입된 위치이다. 부사의 이동은 중요한 의미 변화를 동반하기도 한다.

(101) La porte s'est fermée brusquement.

(102) Brusquement, la porte s'est fermée.

<Confais>

(101)에서, brusquement은 문이 닫혔던 방식을 묘사한다. (102)에서는 문이 닫히는 방식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행의 돌발을 묘사하고 있다. 하나의 부사가 위치에 따라 술어 내적 부사, 술어 외적 부사로 쓰일 수 있으며, 이 때 의미 변화가 온다. 만약, 문장이 양화사quantifieur를 포함하고 있다면, 두 유형의 기능의 차이점은 더 분명해진다.

(103) Lentement, toutes les boules tombaient par terre.

(104) Toutes les boules tombaient lentement par terre.

<Mordrup>

(103)은 모든 공들이 한꺼번에 같이 천천히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104)는 천천히 떨어지는 것은 떨어진 공들이며, 다시 말해 공들이 순서에 관계 없이 던져도 모두 천천히 떨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103)에서 부사는 동사의 핵과 함께 담화의 동사를 형성하고 이렇게 일어난 사행은 주어 toutes les boules이다. (104)에서, 이 명사군은 동사 tomber의 주어이고 술어 외적 부사는 주어가 술어에 의해 표현된 사행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또한 주어-술어 부사는 부정문과 양립할 수 없다.

(105) \* Timidement, Pierre ne demanda pas s'il pouvait sortir.

대부분의 경우 부정문은 사행의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며, 거기에서부터 언급된 사행의 불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행의 부정이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사행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주어-술어 부사는 부정문과 양립 가능하다.

(106) Fièremment, Pierre ne sollicite pas une dérogation.

(=Fièremment, Pierre refusa de solliciter une dérogation.)

주어-문장 부사는 다음과 같이 문장의 세 개의 시스템으로 특징을 정리해볼 수 있다.

- 1) 문장 Que P être adj. de la part du sujet, 혹은 변이형 P, cela être adj. de la part du sujet로 나타낼 수 있다. 주어 문장 부사는 총체적으로 문장에 걸린다.
- 2) 문장 sujet est adj. 는 부사의 유형이 주어를 향해 방향이 정해진 것을 나타낸다.
- 3)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장: V inf. est adj., 여기서 V inf는 정해지지 않은 형태로 술어를 나타내며, 술어를 향해 방향이 정해진 것을 나타낸다.

부사 prudemment의 예를 들어 보자.

(107) Marie a répondu prudemment.

(108) Prudemment, Marie a répondu.

(109) Marie, prudemment, a répondu.

(107)에서의 해석이 Marie가 신중한 대답을 했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108)와 (109)에서는 Marie가 대답하는 신중함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07)는 술어 내적 부사로 (108)와 (109)는 술어 외적 부사로 쓰였으며, (108)과

(109)는 아래와 같이 변환 가능하다.

(110) Que Marie ait répondu a été prudent de sa part.

(111) L'action de Marie a été prudent.

(112) Repondre a été prudent (de la part de Marie).

주어-문장 부사는 일반적으로 주어-술어 부사의 위치와 같다. 동사 앞에 놓이며, 문두나 주어와 동사 사이에 삽입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또한 주어-문장 부사는 부정과 양립 가능하지만, 부정의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113) Marie n'a pas répondu prudemment.

(114) Prudemment, Marie n'a pas répondu.

(115) Marie, prudemment, n'a pas répondu.

(114)과 (115)는 그녀가 대답하지 않았고, 그것을 행하는 신중함을 가졌다는 것을 암시한다. 반면 (113)은 그녀가 대답을 했지만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도 술어 내적 부사와 술어 외적 부사의 구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이 부사의 기능은 의문문과 명령문과는 양립할 수 없다.

(116) \* Prudemment, Marie a-t-elle refusé?

\* Prudemment, refuse!

의문문과 명령문은 서술적인 관계가 잠재되어 있고, 즉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 사이에 선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문장의 구성 요소 중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 의문문과 양립할 수 있다.

#### (117) Qui, prudemment, a refusé?

통사적 기준으로 Guimier는 부사를 술어 내적 부사와 술어 외적 부사로 분류하였으며, 이 장에서는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술어 내적 부사는 동사와 함께 술어를 구성하는 부사로 동사와 동사의 보어를 수식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술어 외적 부사는 문장에 통합되어지지 않는 부사로 주어-술어를 수식하는 경우와 문장을 수식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뒤이어 Guimier의 부사 분류와 기능을 의미적 기준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 통사적이고 의미적으로 상통하는 부사 분류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 2.2 문장 내적 부사와 문장 외적 부사

문장 내적 부사adverbes endophrastique는 대부분의 명사, 동사, 형용사들과 같은 역할을 한다. 문장 외적 부사adverbes exophrastique는 문장의 외부의 구성 요소이며 지시적인 의미의 구축에 참여하지 않지만, 그것을 생산하는 행위 혹은 언술을 설명하는 화자의 개입의 흔적을 나타낸다.

위에서 술어 내적 부사와 술어 외적 부사의 대조를 통해 여러 종류의 부사들을 보았다. Guimier에 의해 형용사, 동사, 주어-술어, 문장 수식하는 부사들은 의미론적으로 모두 문장 내적인 부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Guimier는 문장 부사를 문장 외적 부사exophrastique라고 칭한다.<sup>17)</sup> 문장 외

---

17) Guimier는 부사를 의미적 관점으로 문장 내적 부사adverbes endophrastique 와 문장 외적 부사exophrastique로 분류한다. 문장 내적 부사는 성분 부사, 문장 외적 부사는 문장 부사의 개념과 동일하다. 이 장에서는 문장 외적 부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적 부사는 언술행위를 구성하는 요소와 관계되는 정보를 가져 온다. 다시 말해, 문장 외적 부사는 언술행위자에 의해 언술을 대상으로 하는 생각을 나타낸다.

Guimier에 따르면, 언술행위는 세 개의 큰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말해진 것 dit, 말하고자 하는 것 dire, 담화의 목적 visée de discours이 그것이다.<sup>18)</sup>

말해진 것 le dit은 명제의 내용이자 상호 대화자에게 누설된 정보이다. 앞 선 작용의 결과이기도 하다. 말하고자 하는 것 le dire은 언술행위의 원인이 되는 특징이다. 예를 들어 어휘적이고 문법적인 단어들의 선택, 관계 정하기, 언술의 선택 등이 있다. 담화의 목적 la visée de discours은 수신자에게 의사소통에서 언어 외적으로 속하는 사실에 언어학적인 형태를 주는 것이다. 담화의 목적은 세 가지 구성 요소에 원인을 두는데 화자, 의사소통의 사건, 서술 자료체, 수신자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담화의 목적은 말해진 것 le dit와 말하고자 하는 바 le dire를 결정짓는다.

Guimier는 이 언술행위의 단계에 대한 영향권으로 부사의 분류를 세분화하였다. 즉, 문장 부사의 의미 영역이 말해진 것 dit에 걸리는지, 말하고자 하는 바 dire에 걸리는지, 담화 차원에 걸리는지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한다.

부사의 의미 영역이 말해진 것 dit에 걸리는 부사는 평가 부사 adverbe évaluatif와 단언 부사 adverbe assertif가 있다.

평가 부사는 명제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낸다.

(118) Heureusement, Pierre est venu.

---

18) C. Guimier, op. cit. p.103-106 :

- dit: un contenu propositionnel. une information livrée à un interlocuteur, réel ou fictif.
- dire: un caractère opératif de l'acte d'énonciation (les choix des unités lexicales et grammaticales, leur mise en relation, les choix énonciatifs, ect.).
- visée du discours: l'intention de donner une forme linguistique à un fait appartenant à l'extra-linguistique en vue de communication à destinaire.

부사의 내용이 문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사건 <Pierre/venir>라는 명제의 내용은 부사에 의해 평가 된다. 다시 말해, 부사 heureusement은 명제의 내용 전체를 수식하며, 내용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나타낸다. 이 부사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바꿀 수 있다: Adverbe, P -> P, ce qui est adj.: Pierre est venu, ce qui est heureux.

평가 부사의 위치는 과거 분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 분사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않은 부사를 상기해 낸 것으로 생각된다.

(119) Je suis, malheureusement, assez pauvre.

평가 부사는 부정과 같이 쓰일 수 있지만, 의미상 부정의 영향권에 속하지 않는다.

(120) Curieusement, Pierre ne s'est pas présenté au contrôle.

부정문에서 평가 부사가 문장 중간에 위치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부정의 조사 pas의 뒤에 위치한다.

(121) Je n'ai pas, malheureusement/curieusement, réussi à convaincre Pierre.

이 경우 부사는 언술행위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을 나타낸다. 이 문장은 '나는 Pierre를 설득하지 못했고,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로 해석될 수 있다. 위 예에서 부사는 부정이 된 명제의 내용을 대상으로 판단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되며 문장은 뒤따르는 방식으로 도식화 된다

부사 (부정, P)

부사는 조사 pas 앞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91)의 예와 달리, 이 경우 어조의 차이가 없다.

(122) Je n'ai malheureusement pas réussi à convaincre Pierre.

(122)에서 부사는 부정의 영향권에 속한다. 즉, '내가 Pierre를 설득시키지 못한 무능력함은 불행하고 유감스럽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것은 부정 자체를 대상으로 판단을 나타내고, 문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식화될 수 있다.

(부사, 부정 P)

한편, 평가 부사는 의문문과 명령문의 양상과는 양립할 수 없다.

(123) a. \* Heureusement, est-ce que Pierre est venu?

b. \* Malheureusement, ne viens pas cette semaine!

평가 부사는 앞 문장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방식으로 기능할 수는 없다. 평가 부사는 단언 부사와 바로 그러한 점에서 구분된다.

명제의 내용을 대상으로 질적인 가치 평가를 하는 가치 평가 부사와는 반대로 단언 부사들은 명제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인 가치 평가의 기호이다. 단언 부사는 언술에 대한 진실의 가치를 논의 한다. 그들은 가능한 것, 있을 법한 것, 확실한 것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언술에 의해 표시된 사실을 나타낸다. 단언 부사는 명제의 내용에 대해 상대적 확실성 또는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124) J'aurai évidemment besoin de vous

(=j'aurai besoin de vous, cela est évident; il est évident que j'aurai besoin de vous).

단언 부사들은 그들이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다양한 양적인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sûrement은 보통 있을 범함(개연성)을 표현하지만, 부정의 소사 pas 앞에 있을 때 확실성을 표현할 수 있다.

(125) a. Sûrement, il va venir demain.

b. Le rendez-vous est-il annulé?

-Sûrement pas.

단언 부사와 부정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전자는 관계된 동사 뒤에 위치한 단언 부사가 부정과 양립할 수는 있지만, 의미가 그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 부사는 부정 소사 pas 앞에 위치한다. probablement, assurément, certainement, sûrement, évidemment, vraisemblablement 등이 있다.

(126) Pierre ne viendra probablement pas.

단언 부사에서 부정은 부사 없는 문장을 대상으로 하며, 부사는 부정된 이 명제를 대상으로 한다. 즉 Pierre ne viendra pas 명제를 대상으로 하여 부사 probablement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후자는 관계된 동사 뒤에 위치하는 단언 부사들이 부정의 영향권 속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부사는 부정 소사 pas 뒤에 나타난다. nécessairement, fatalement, forcément 등이 있다.

(127) Pierre ne viendra pas nécessairement.

동사 앞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단언 부사들이 부정과 양립할 수 있다.

(128) Apparemment, Pierre ne viendra pas.

한편, 단언 부사들은 그들이 형태적으로 부정의 접두사를 포함하고 있을 때에도 긍정적인 가치를 가진다. indubitablement, inconstablement, indiscutablement, inévitablement, immanquablement과 같은 부사들은 가능성, 확증, 확실성을 표현한다.

또한 부사들 중 전체 의문문에 대담으로 사용되는 유일한 단언 부사들은 항상 긍정적인 답을 나타낸다.

(129) Pierre a-t-il arrêté de fumer?

-Évidemment. (=évidemment, oui)

부정의 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부정의 소사 pas와 결합시킬 수 있다.

(130) Pierre viendra-t-il?

Probablement pas / Certainement pas.

평가를 나타내는 부사인 naturellement은 단언 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타낼 수 있다.

(131) Pierre, as-tu fini tes devoirs?

-Naturellement! \* Curieusement/\* Etrangement

따라서 부사가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naturellement은 평가 부사 혹은 단언 부사로 달리 기능할 수 있다.

Heureusement과 malheureusement의 경우도 이와 같다.

하지만 이 부사들은 많은 경우 평가를 나타내는 가치를 잃어버린다. 특히 위의 경우에서처럼 단독 대답으로 쓰일 때에는, 주관적인 태도를 드러내지 않는다.

(132) Ton ami est-il arrivé?

-Heureusement / Malheureusement.

Guimier의 또 다른 언술행위 단계인 말하고자 하는 바 dire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며 화자가 방출한 언술의 연속에 의해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말하고자 하는 바의 의미적 영향권에 속하는 부사로 접속 부사, 메타 언어 부사, 범렬 부사가 있다.

접속 부사들은 담화의 배열에 대해 지시 사항을 주는 부사이다. 화자는 그의 언어를 선택하여 담화의 목적, 의미 작용의 의도 등을 현동화 할 수 있는데 이때 언술자에 의해 선택된 주석을 나타내는 부사들을 메타 언어 부사adverbes métalingustiques라고 부른다. 또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항상 명시된 것은 아니며, 내재적으로 말하는 것, 혹은 말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것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사를 범렬 부사adverbes paradigmatisants라고 부른다.

접속 부사는 담화의 단위들 사이에 명시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 쓰인다. 접속 부사는 담화를 시작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조용소이다. 이 부사들은 앞선 문맥과 그들이 의미적 영향권인 언술 사이에 연결을 확실히 하는 기능을 하여 담화의 구조를 안정시킨다. 즉, 접속 부사는 언술과 연결된 언술 사이의 관계를 명시하고, 연결된 언술들에 의해 나타난 사건들은 후속, 선행, 공존의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다.

통사적으로 이들은 모든 문장(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명령문)에 나타날 수 있

다. 의미적으로는 특별한 제약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autrement*은 항상 평서문에만 쓰일 수 있다.

- (133) a. *Autrement, Pierre viendra*  
b. *Autrement, Pierre ne viendra pas*  
c. \*? *Autrement, Pierre viendra-t-il?*  
d. \*? *Autrement, viens!*

또한 접속 부사들은 전체 의문문이나 부분 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장과 분리되어 문두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메타 언어 부사는 언술행위자에게 언술의 언어학적인 형태에 관련된 지시 사항을 주는 부사들이다. *textuellement, concrètement, littéralement, proprement, brièvement* 등이 있다.

(134) *Il m'a littéralement claqué la porte au nez*

이와 같이 메타 언어 부사는 언어 활동에서 관계된 정보를 주는 부사이다.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언술의 해독을 위한 지시 사항을 받는 상호 대화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메타 언어 부사는 앞 선 언술을 재표명 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이 경우 비교급에서 자주 나타난다. *plus exactement, plus précisément*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부사들은 재표명으로 담화의 목적이 불완전한 언술행위 도중에 언술행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혹은 정확성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메타 언어 부사의 이런 특징은 부정법 혹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사 형태에 도움을 받아 쓰이기도 한다. *à proprement parler, grossièrement parlant, autrement dit* 가 있다.

범렬 부사는 Nølke(1983)에 의해 차용된 용어이다. 범렬 부사는 실제 문장 속에 소속된 요소와 같은 요소들의 계열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도입된다.<sup>19)</sup>

범렬 부사를 설명하기 위해 également은 좋은 예이다.

(135) Pierre est également venu

이 문장은 également을 통해 Pierre와 다른 사람이 온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 가정은 보통 앞의 문맥 속에 명시 된다.

따라서 부사는 그가 속한 언술이 앞의 언술을 추가하고 그와 관련하여 해석되어질 수 있는 영향권 내에서 접속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범렬 부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136) Combien de personnes ont répondu à l'invitation?

-Trois personnes seulement ont répondu.

위의 예에서 seulement은 앞 선 문맥과 명시된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채 범렬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 때 범렬 부사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범렬 부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심점의 표시이다. 이는 초점화 focalisation라고 불릴 수 있는데 인용된 예에서 범렬 부사는 Pierre와 trois에 초점을 맞춘다.

-ment으로 된 범렬 부사는 많지 않다. notamment, particulièrement, essentiellement, justement, principalement, uniquement, simplement, spécialement, exclusivement이 있다.

범렬 부사의 위치는 긍정문에서는 문두에 나타나지만, 부정문에서는 그렇지 않

---

19) H. Nølke(1993), Le regard du locuteur, p.19

"un adverbial paradigmatissant introduit en tant que présumé un paradigme d'éléments semblables à l'élément auquel il est attaché dans la phrase actuelle"

다.

- (137) a. Le texte préconise, notamment, la tenue d'une conférence internationale.
- b. Notamment, le texte préconise la tenue d'une conférence internationale.
- c. \* Notamment, le texte ne préconise pas la tenue d'une conférence internationale.

부정문에서 범렬 부사들은 부정과 양립할 수 있고 부정의 영향권에 포함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notamment, également)에는 부정과 양립할 수는 있지만 그 영향권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 (138) a. Pierre n'a pas acheté uniquement du fromage.
- b. \* Le texte ne préconise pas notamment, la tenue d'une conférence internationale.
- c. Le texte, notamment, ne préconise pas la tenue d'une conférence internationale.

범렬 부사는 분열문에서 초점화될 수 없다.

- (139) \* C'est notamment que le texte préconise la tenue d'une conférence.

범렬 부사는 의미적으로 문장 외적인 걸림이 문제가 된다. 범렬 부사 중 몇몇 부사는 여러 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유형의 부사에 포함될 수 있다.

(140) Le tremblement de terre qui a frappé (...) le Kansai (...) a particulièrement éprouvé la ville de Kobe.

위 문장에서, particulièrement은 동사 éprouver를 대상으로 하는 문장 내적인 부사로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 Kobe 마을은 특별한 시련을 겪었다. 마을은 매우 힘든 시련을 겪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 편으로 이 문장은 명사구 la ville de Kobe를 대상으로 하는 범렬적인 가치를 지닌 문장 외적인 부사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지진은 Kobe 마을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다'로 해석되며 '지진에 의해 시련을 겪은 모든 장소들 중 가장 힘들게 겪었던 곳이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의미적 해석의 모호함은 그 문맥에 따라 이해되어질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말해진 것과 말하고자 하는 바 외에도 언술행위 단계에서 화자는 부사의 도움으로 담화의 목적을 결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담화의 목적을 대상으로 하는 부사는 크게 배경 부사와 발화 내적인 부사로 하위분류 된다.

배경 부사adverbes de cadrage는 지시 관계, 개념 또는 시-공간적인 영역을 제한하며, 상호 대화자에게 명령을 준다. 발화 내적 부사adverbes illocutifs는 화자가 발화 내적인 행위, 다시 말해 단순한 메시지의 생성을 넘어 행위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부사이다. 이들은 상호 대화자에게 담화의 목적에 있어 의사소통의 의도와 관련된 지시 사항을 준다. 배경 부사의 경우 다시 영역 부사, 시-공간 부사, 습관 부사들로 세분화되어질 수 있다.

우선, 영역 부사들은 특별한 지시 관계의 영역에서 언술의 유효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영역 부사에는 anatomiquement, commercialement, géographiquement, logiquement, moralement등이 있다. 말하기 원하는 것은 수신자에게 정보를 주는 내용을 전달하기 원하는 것이다. 수신자가 메시지를 인식하는 방식은 담화의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영역 부사는 문장 외적인 기능만을 허용하는 경우와 문장 외적인 기능과 내부 서술적인 기능을 허용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41) Logiquement, la première proposition équivalent à la seconde.

(142) Paul a analysé logiquement la deuxième provinciale.

처음 예에서의 부사는 문장 외적인 기능을 가진다. 그는 뒤 따르는 명제가 유효한 영역을 명시한다. 두 번째 예에서 부사는 내부 서술적인 기능의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동사를 대상으로 한다. 문장이 부정이 될 경우 그것은 부정의 영향권 안에 있다. 이렇게 영역 부사는 두 가지 방식의 기능을 모두 허용하지만 각각의 해석은 다르다.

또한 영역 부사는 명령문을 제외한 모든 문장과 양립할 수 있다.

시-공간 부사는 언술을 시간 혹은 공간적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이다. 문장의 처음에 위치한 시-공간 부사는 하나의 영역을 만들고, 그가 위치한 영역과 문장의 유효성의 틀을 구성하는 세상을 창조한다.<sup>20)</sup>

공간을 나타내는 -ment 부사들은 거의 없다. 구체적인 장소를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환유적인 가치를 지닌 부사들도 있다.

(143) Le Suisse, à l'écart, s'indignait intérieurement contre cet individu.

<Flaubert>

이 부사들은 모든 유형의 문장과 양립할 수 있다.

-ment으로 된 시간 부사들은 자주 문장의 처음에 나타난다. 그들은 날짜, 기간, 빈도 등 여러 개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

20) Le Goffic(1993: 463)

"ouvre un champ, crée un monde, qui constitue le cadre de validité de la phrase, le domaine où elle vient se placer"

(144) Prochainement, je vais aller en Chine.

습관 부사에는 généralement, habituellement, invariablement, normalement, ordinairement, traditionnellement 등이 있다. 그들은 부정문과 분리되어 문장의 처음 위치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의문문과 분리 되어 문장의 처음에 나타날 수 있다. 이 부사들 또한 문장 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서술 작용의 유효성을 제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145) Généralement, les français prennent le dîner longtemps.

담화의 목적을 영향권으로 하는 발화 내적 부사 adverbess illocutifs라는 명칭은 Nojgaard (1993)에게서 차용된 것이다. 이 부사들은 발화 내적인 행위 혹은 문장 같은 언술행위에 의해 구성된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부사들을 말한다. 발화 내적인 행위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구성 요소라는 의미에서 담화의 목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46) Réellement, tu devrais te méfier.

위의 문장은 mon avertissement est réel로 해석된다. 여기서의 상호 대화자가 목적이 되고 부사는 말해진 것이 관계하여 받아들이려는 행동을 암시한다. franchement, honnêtement, sérieusement, sincèrement, vraiment과 같은 부사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부사들은 화자가 진심이라는 것을 표명하게 하고 거기에서 그의 말의 진실성을 확신하게 한다.

의문문에서 발화 내적 부사는 때때로 모호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147) Franchement, où étais-tu cette nuit?

부사는 질문에 상응하는 발화 내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수식하지만, 행위는 본질적으로 술직할 수 없다. 따라서 부사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주체자들을 수식한다.

이 부사들은 보통 문장의 처음 부분에 위치한다. 그들은 문장 내적인 부사 위치에 나타나고, 문장에서 구분되는 어조를 지닌다.

(148) juju, honnêtement, ne le reconnaissait déjà plus.

<Fallet>

위에서 말해진 것, 말하고자 하는 것, 담화의 목적에 대해 알아본 것과 같이 문장은 담화의 목적과 함께 시작하고 수신자에 맡겨진 명제의 내용에 이르는 원인의 연속된 결과이다. 통사적으로 문장에 걸리는 문장 외적인 부사는 의미적으로 문장 속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고, 특징지을 수 있고, 수식할 수 있다. 문장 외적인 부사는 문장의 상에 따라 위의 세 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은 문장에 대해 언술행위자에 의해 가져와진 시선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명목으로 부사는 항상 언술행위자의 주관성을 주고, 직접적인 개입의 흔적이라 말할 수 있다.

### 3. Ducrot와 Nølke의 부사 연구

부사의 의미 효과 영역을 중심으로 부사의 기능을 연구했던 Guimier와 마찬가지로 Ducrot 역시 의미적 영향 *incidence sémantique*에 근거를 두고 부사의 출현 *occurrence d'adverbes*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1980). Guimier와 Ducrot는 용어 사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분류는 유사하다.

Ducrot에 의하면 언술은 언술행위와 동시에 산출되고 언술행위는 언술이 출현하는 사실 그 자체로서 언술 산출에 수반된다고 하였다.

Ducrot는 언술행위 부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1980, p.11-61)<sup>21)</sup>

1. 한 언술체에 언술행위에 관한 영향력을 지닌 부사를 첨가한다면, 그것은 이 언술체가 부사의 의미 자체에 근거해서 그것의 언술행위에 관해서 말하고, 언술행위를 논평하고, 따라서 언술행위를 제시한다.  
제시는 언술체가 발화 내적 행위의 수행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명백해진 것이다. 따라서 한 언술체는 그것의 언술행위에 관한 합리적인 성격 규정을 나타낸다.
2. 그렇지만 언술행위 부사는 발화 내적 행위 즉, 언술행위에 관한 성격 결정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발화 내적으로 성격이 결정된 것, 다시 말해서 언술행위에 걸린다. 따라서 이러한 부사를 통해서 언술에 걸리는 판단의 유형에서는 술어만 표현되어 있고, 주제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

Ducrot는 부사의 의미적인 영향에 근거를 두고 부사의 작용 영역에 따라 구성 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부사, 언술체에 영향을 미치는 언술 부사, 언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언술행위 부사로 분류하였다.

(149) Seul Pierre parlait franchement.

(150) Heureusement, seul Pierre parlait.

(151) Franchement, seul Pierre parlait.

---

21) 이현희(2003), 『언술행위 부사』에서 재인용함.

위의 예에서 (149)는 'Pierre만 솔직하게 말했다(다른 사람들은 거짓말 했다)'로, (150)은 '(여러 명이 말하지 않고)다행히, Pierre만 말했다'로 (151)은 '(여러 명 중)Pierre만 솔직하게 말했다'로 해석된다.

(149)에서 부사 *franchement*은 의미상 동사 *parler*를 수식해주는 부사로서 앞에서 정의한 성분 부사라 할 수 있으며 *heureusement*은 (150)에서 언술 전체를 수식하기 때문에 언술 부사라 할 수 있다. 또한 (151)의 *franchement*은 <*d'une façon franche*>를 의미하며, 수행된 단언문 <*seul Pierre parlait*>이 솔직하게 제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언술행위에 대한 평언을 하는 언술행위 부사라 할 수 있다.

한 편, Nølke는 Ducrot보다 부사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Nølke는 문장 부사를 문맥 부사로 지칭한다.<sup>22)</sup> 문맥 부사는 언술 상황에 관계된 부사를 말한다.

Nølke는 문맥 부사를 부사의 하위 부류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다른 부사들의 기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화용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문맥 부사는 문맥 속에 위치하기 위해, 또 담화의 기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언술의 단계에서 언어를 배열하는 역할을 한다. 문맥 부사는 문장 부사와 범렬 부사를 포함하고 있다. 문장 부사는 다시 문장의 언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언술행위 부사와 진실에 대한 조건을 수정하고 보충하며 그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언술 부사로 세분화 되어 진다.

그러나 이 부사들은 특히 화자와 관계가 깊다. 사실, 문맥 부사의 전형적인 기능은 언어학적으로 발생된 것 *produit*에 화자가 첨가하는 주석을 전달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 발생된 것의 핵심 *noyau*은 일반적으로 문장을 통해 전달되어진 명제이다. 문맥 부사들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문맥 부사는 언술 내에서 초점화될 수 없다.

---

22) H. Nølke(1993), *Le regard du locuteur*.

- 2) 문맥 부사는 명제적 내용이 아닌 언어 외적 요소에 관여한다.
- 3) 문맥 부사는 분리된 위치에만 놓일 수 있다.
- 4) 문맥 부사는 문장과 선택 제약을 갖지 않는다.

앞의 특성들은 다음과 같이 형태적인 기준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초점화 focalisabilité

- (152) a. \* C'est heureusement que Paul a vendu sa voiture.
- b. C'est hier que Paul a vendu sa voiture.

-영향권 portée

- (153) a. Paul n'a pas heureusement vendu sa voiture.
- b. \* Paul n'a pas vendu sa voiture heureusement.
- c. Paul n'a pas vendu sa voiture hier.

-이동성 mobilit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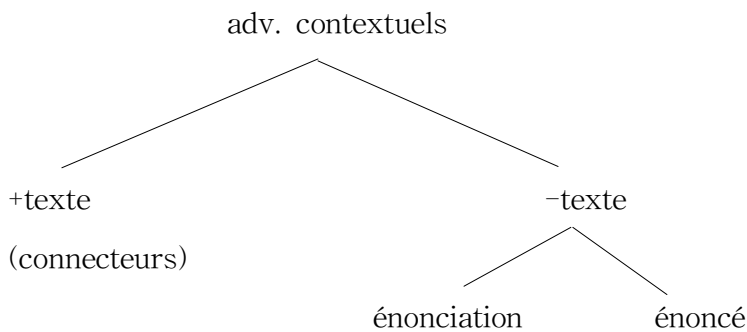
- (154) a. Paul, heureusement, a vendu sa voiture.
- b. Paul, a heureusement vendu sa voiture.
- c. Paul a vendu sa voiture, heureusement
- d. \* Paul a hier vendu sa voiture.

위의 예문들에서 부사 heureusement과 hier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이들은 초점화와 이동성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나고 적용되는 의미적 영향권도 다르다. heureusement은 초점화가 불가능하지만, 이동성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반면 부사 hier는 초점화가 가능하지만 위치에 제약을 받는다. 부정의 영향에 있어서도 heureusement은 부정의 수식을 받지 않지만, hier는 부정의 수식을 받는다.

따라서 heureusement은 문맥 부사, hier는 문맥 부사가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ølke는 문맥에 대한 텍스트적 문맥과 언술 상황을 지칭하는 비텍스트적 문맥으로 부사를 분류한다. 그리고 그는 문맥 부사로 언술행위 주체인 화자의 개념과 언술체 혹은 언술의 의미를 산출해주는 언술행위와의 관계를 규정한다.

문맥 부사를 언술/언술행위, 텍스트적 문맥/비텍스트적 문맥에 대한 속성으로 분류한 Nølke의 분류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결국 문맥 부사는 연결 부사, 언술행위 부사, 언술 부사로 세분화된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접속 부사의 특징은 공-문맥(co-texte<sup>23</sup>)에서 언술들 혹은 언술행위들과 관계되어 통사적으로 언술이나 언술행위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부사들의 주요한 기능이고 다른 문맥 부사들의 부류와 그들을 구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언술이나 발화들 사이에 나타난 결합 관계들을 설명해주는 부사로, 화용론적 연결사의 기능을 한다.

23) Claude Guimier éd.(1996), Co-texte et calcul du sens, Presses universitaires de CAEN, p.41

co-texte는 담화 연쇄에 공동으로 존재하는 언어학적 요소들로 제한된다. 따라서 언어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한정된 변이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En parlant de co-texte, nous nous limitons aux éléments linguistique qui sont coprésents dans la chaîne discursive. Par conséquent, nous ne prenons pas en compte les variations qui sont déterminées par des facteurs extralinguistiques."

(155) Faites attention, autrement vous aurez à faire à moi.

(156) Paul est également en retard.

(155)의 부사 *autrement*은 언술 사이의 결합 관계를 나타내고, (156)의 부사 *également*은 언어 문맥을 명시해주는 부사의 기능을 하는 연결 부사들이다.

둘째, 언술행위 부사는 문맥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말하고자 하는 *le dire*을 대상으로 한다. 즉, 언술행위 부사는 화자가 말하려는 바에 근거를 두어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와 자신의 언술행위에 관하여 주석 *commentaire*의 역할로 사용된다. 이 부사들은 실제로 말해진 언술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포된 언술을 언어 외적인 정보와 결부시킨다.

(157) Sérieusement, il vient à la réunion pour te voir.

이 언술행위 부사는 *oui, non*과 함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있다.

(158) Pierre est-il intelligent?

-Oui, entre nous.

언술행위 부사와 접속 부사들을 형식적인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문맥 부사의 한 유형인 언술행위 부사는 언술행위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되며,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a. 발화 내적 행위<sup>24</sup>에 영향을 미치는 발화 내적 *illocutoires* 부사

---

24) 질 시우피, 단 반 람돈크(2005), 이선경, 황원미 옮김, 『언어학 이해를 위한 주제 100선』, p.302  
"모든 언술은 *langue*의 내재적인 코드에 따라 언어 기호들을 산출하고 연결시키는데 이 때 의도가 개입된다. 화자와 대화 상대자에게 행위의 특정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것이 바로 발화내적행위 *acte illocutoire*라고 한다."

(franchement, en fin compte...)

- b. 발화 내적 행위의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화자적interlocuteurs 부사  
(entre nous, à mon avis...)
- c. 언술행위의 설명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언술 제시présentation 부사  
-형식 부사(bref, en somme...)  
-제시 선택 부사(autrement dit, plus précisément...)
- d. 발화 내적 행위와 관련된 조건적 의미를 나타내는 발화 관여성  
pertinence 부사

언술행위 부사의 하위 부류에 있어 Nølke와 앞서 설명한 Schlyter의 입장은 아주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문장 부사의 가장 큰 부류인 언술 부사를 살펴보자. 이 부사들은 언술의 진리치에 논평commentaire을 덧붙이면서 내용의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 heureusement, naturellement, certainement, sans doute, probablement, sûrement 등의 부사가 여기에 속한다.

언술 부사와 언술행위 부사는 문장 부사의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문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위치의 이동도 자유롭다. 또한 분열문에서 초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언술 부사는 양상적 의미에서 언술행위 부사와 구분될 수 있다.

(159) Pierre a certainement résolu ce problème.

(159)의 예에서 언술을 발화한다는 것은 화자가 Pierre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이다. 화자가 자신의 언술에 대한 태도를 상대방에게 알린다는 점에서 말해진 언술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이는 Mørdrup의 태도의 분리 접속 부사류와 관계 지을 수 있다. 언술 부사는 그가 지닌 논평commentaire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위분류할 수 있다.

- a. 진리의 양상을 부여하는 양상 부사adverbiaux modaux  
peut-être, sans doute가 있다.
- b. 제시된 내용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평가 부사adverbiaux  
évaluatifs로 heureusement, bizarrement 등이 있다.
- c. 주어 술부 관계를 명시해주는 성분 부사adverbiaux prédicatifs  
prudemment등이 있다.
- d. 언술 관여성 부사adverbiaux de pertinence  
en général, d'habitude, en fin de compte가 있다.

Ducrot와 Nølke의 연구는, 부사가 미치는 영향권을 확대시킴으로써 전통 문법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다음과 같은 부사의 유형을 설명해준다.

(160) Sincèrement, il est méchant.

예문 (160)에서 해석은 <Je te dis qu'il est méchant>이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상황에서 동작주가 언술체에서 사용된 대명사와 다르다는 것이다. 즉, 담화라는 특정한 시공간 상황 속에서 <il est méchant>에 영향을 미치는 부사 sincèrement의 주체는 화자에 해당한다.

## V. 결 론

본 논문은 부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ment 부사의 기능과 그에 따른 분석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사는 문장 내에서 다른 품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요소로 생각되었으며, 부사의 의존적인 특성만을 고려한 전통 문법에서는 부사가 갖고 있는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부사를 분류하였다. 하지만 의미에만 초점을 맞춘 부사의 분류는 설명하기 불가능한 예외의 경우를 지닌다는 데 한계가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 부사에 대한 분류는 문법학자와 언어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해졌다. 특히 최근에는 생성문법, 화용론적 관점에서의 부사에 대한 활발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통사론적, 화용론적 연구를 통해 부사의 기능에 대한 분류와 분석이 가능해졌다.

위에서 설명한 관점에 따른 여러 학자들의 부사 분류와 그에 따른 기능을 비교하고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 문법적 관점의 Grévisse는 문장 내의 '의미' 기준에 따라 의미적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분 부사 연구에만 그쳤다. Mørdrup은 이와 달리 통사적 기준과 부사 의미에 따라 문장 부사를 연구하였다. Mørdrup은 문장 부사를 접속 부사, 화법 분리 접속 부사, 태도 분리 접속 부사로 분류한다. 이들은 각각 의미론적 관점과 화용론적 관점이라는 다른 관점에 따른 분류에서 문장 부사와 문맥 부사라는 용어는 다르지만, 문맥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Schylter의 입장에서는 그 의미에 따라 부사를 7가지로 분류하며 문장 부사와 관계 혹은 언술행위 부사를 구분한다. 그에게 문장 부사와 언술행위 부사는 독립된 부사류로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Guimier의 -ment 부사에 대한 연구이다. 의미-화용론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Guimier도 부사의 걸림incidence와 영향권portée의 개념을 바탕으로 부사를 분류한다. 그는 부사를 크게 문장

내에 한 요소를 수식하는 부사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로 구분하는데, 문장 내적 부사 *adverbe endophrastique*와 문장 외적 부사 *adverbe exophrastique*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문장 내적 부사는 의미적 관점에서 문장 내부의 구성 요소이고 그 부사가 수식하는 요소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문장 외적 부사는 문장 외부의 구성 요소이며, 화자가 생산한 언표나 행위에 대한 화자의 언급이다. 이 부사는 언술행위의 구성적 요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Guimier는 다른 학자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위 그룹을 분류한다. 즉, 문장 부사의 의미적 영역이 말해진 것 *dit*에 걸리는 가, 말하고자 하는 바 *dire*에 걸리는가, 담화 차원에 걸리는가에 따라 다르다. Guimier에 따르면 부사의 의미 영역이 말해진 것 *dit*에 걸리는 부사는 평가 부사와 양상 부사이며, 말하고자 하는 바 *dire*에 걸리는 부사가 접속 부사와 메타 언어적 부사, 범렬 부사이다. 범렬 부사에 대해서 Nølke와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여, 문장 외적으로 작용하는 초점화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부사의 의미 영역이 말하고자 하는 바 *dire*에 걸린다고 간주한다. 부사의 의미 영역이 담화 차원에 걸리는 부사는 범주 부사와 발화 내적 부사이다. 그의 분류는 모든 부사를 완전히 그의 분류 속에 포함시키기에는 모호함을 지닌 문장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 전 문법학자들에 의해 분석되어온 분류보다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방식을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Ducrot는 화자의 주관적인 언어 상황과 표현을 내포한 언술행위 부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언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부사들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였다. Ducrot는 문장 부사를 언술적인 영향력을 가진 부사라고 생각하여 이를 언술 부사라고 부른다. 그는 문장 부사는 언표의 의미 자체에 근거하여 언술행위와 언표에 대한 설명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보았던 Ducrot의 분류 중, 성분 부사는 성분 부사로, 언술행위 부사와 언술 부사는 문장 부사로 간주된다. Nølke는 부사 위치의 유동성, 부사의 의미 영역과 부사가 문장 내 어떤 단어에 걸리는지에 따라 문맥 부사와 구성 성분 부사로 구분한다. 그는 문맥 부사를 문장 부사

로 간주한다. 문맥 부사는 문장 속에서 여러 위치를 차지하는 반면, 성분 부사의 위치는 고정되어있는 편이다. 그리고 문장 부사는 문장 전체에 걸리고 부사의 위치 이동이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성분 부사는 동사구에만 걸리며 위치 이동은 의미 변화를 주기도 한다.

Nølke에 따르면 접속 부사의 주 기능은 텍스트의 언표나 언술행위와 통사적으로 관련된 다른 언표와 언술행위를 연결하는 것이다. 즉 이 부사는 표현된 텍스트 문맥과 관련이 있다.

언술행위 부사는 텍스트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외적인 상황이나 언술행위와 관련된다. 이 부사는 말하고자 하는 바dire에 걸리는 부사인데, dire는 화자의 의사 소통 목적에 따라 언표를 생성하는 언술행위의 작용이다. 말해진 것dit은 언술행위 작용인 말하고자 하는 바dire의 결과로 생성된 것이다.

각 하위 그룹에 대한 명칭은 다르지만, 문장 부사를 크게 접속 부사와 분리 접속 부사로 나누고, 분리 접속 부사를 화법 분리 접속 부사와 태도 분리 접속 부사로 분류한 점은 여러 학자들에게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다. Mørdrup은 통사 분포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Nølke와 Guimier는 부사의 의미 효과 영역을 중심으로 부사를 분류하였기 때문에 분류 관점 상의 차이가 있지만 그 결과는 유사하다. 이는 문장 부사의 하위 그룹이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입증한다.

위에서 설명한 여러 이론들을 정리하기 위해 문장부사 franchement을 예로 들어 보자.

(161) Franchement, Paul n'aime pas ce film.

=Je te dis franchement que Paul n'aime pas ce film.

부사 franchement은 부사의 의미를 기준으로 한 Grévisse의 7가지 하위 부류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 *franchement*은 문맥이나 발화 상황과 결부시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Mørdrup의 이분법적 분류에서 이 부사는 화자의 태도와 연관되므로, 태도 분리 접속 부사의 부류에 속한다. Schylter와 Arrivé에 따르면, 발화 형식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가져다주는 부사로, 관계 및 발화 부사라고 할 수 있다. Guimier의 경우, 화자가 말하기 원하는 구성 요소, 즉 담화의 목적을 대상으로 하는 발화 내적인 부사의 분류에 속한다.

Ducrot와 Nølke의 부사 분류에는 발화 내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발화 수반적 부사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문장부사 *franchement*을 두고 지칭하는 명칭과 구분하는 기준은 각 각의 학자마다 다르다. 하지만 현대 프랑스어 문법에 와서는, 부사의 의미만이 아닌, 언술행위 상황과 문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부사는 이제 문장 뿐 아니라 언술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품사이며 그 분류도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끊임없는 연구의 영역임을 인정해야 한다.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부사의 분류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를 고찰하고 결론을 내리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J. Feuillet (1991:35)가 "부사들은 항상 언어학자의 악몽이었다." 라고 말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논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과거와는 달리 부사를 통해 화자와 언술 상황에 주관성을 개입시킨 분석이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에서는 A. Culioli의 언술행위이론에서의 부사에 대한 접근은 시도하지 못했다. Culioli의 연구에서 부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고찰을 통해 *-ment* 부사에 대한 이해가 넓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한 부사 연구를 다음 논문의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 참 고 문 헌

- 문현정(1999), 『부사 분류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원경(2001), 『문장부사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희(2003), 『언술행위 부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질 시우피, 단 반 람돈크(2005), 이선경, 황원미 옮김, 『언어학 이해를 위한 주제 100선』, 동문선.
- Arrivé, M. et al., (1986), *La grammaire d'aujourd'hui*, Paris, Flammarion.
- Blumenthal, P., (1990), "Classement des adverbes: Pas la Couleur, rien que la nuance?", *Langue française* 88, Larousse.
- Charaudeau, P. et Maingueneau, D., (2002), *Dictionnaire de d'analyse du discours*, Seuil
- Dubois, J. et al., (1973), *Dictionnaire de linguistique*, Librairie Larousse.
- Ducrot, O. et al., (1980), *Les Mots du discours*, Paris, Minuit.
- Ducrot, O. et al., (1984), *Le dire et le dit*, Paris, Minuit.
- Feuillet J., (1991), Adjectif et adverbe : essai de classification, in Guimier, C. & Larcher, P., eds., 1991a, 35-57
- Grévisse, M., (1980), *Le bon usage*, Paris, Duclot.
- Guimier, C., (1996), *Les adverbes du français : le cas des adverbes en -ment*. Ophrys.
- Claude Guimier éd. (1996), *Co-texte et calcul du sens*, Presses universitaires de CAEN.
- Gezundhajt, H., (2000), *Adverbes en -ment et opérations énonciatives: Analyse linguistique et discursive*, Peter Lang.
- Martin, R., (1990), "Pour une approche vériconditionnelle de l'adverbe 'Bien'",

Langue Française 88, Larousse.

Molinier, C., (1990), "Une classification des adverbes en -ment", Langue française 88, Larousse.

Mørdrup, O., (1976), "Une analyse non-transformationnelle des adverbes en -ment", Revue Romane numéro spécial 11, Copenhague, Akademisk Forlag.

Nølke, H., (1990), "Les adverbiaux contextuels; problèmes de classification", Langue française 88.

Nølke, H., (1993), *Le regard du locuteur*, Paris, Kimé.

# RÉSUMÉ

## Etude sur les adverbes français

Park, Su-Jung

Département de langue et de littérature françaises

Cours de masteur

Université féminine de Sungshin

Dans cette thèse, nous avons pour but d'analyser les adverbes -ment. La définition de l'adverbe a posé de redoutables problèmes aux linguistes. Les adverbes sont traités comme des constituants secondaires de la phrase. Mais, en fait, ils font du rôle important dans la phrase. Les adverbes sont toujours invariable et modifient un autre constituant dans la phrase. De plus, ils peuvent déterminer la valeur de la phrase et se changer des significations selon les éléments de linguistique extérieure comme les contextes, énonciations, situations, etc.

Dans la recherche, nous observons les adverbes en -ment selon trois points de vue.

D'abord, chez les grammairiens traditionnels, on trouve la classification de

Grévisse. Grévisse classifie des adverbes selon leurs sens. Mais les sens qu'il a appliqué des critères implicites, sont flous dans la phrase. Alors sa classification ne peut pas expliquer tous les emplois des adverbes.

Dans le point de vue sémantique, Mørdrup et Schlyter sont remarquables. Mørdrup a appliqué les critères syntaxiques, sémantiques et morphologiques pour classer les adverbes en -ment. Il a classé les conjonctifs et les disjonctifs des adverbes. Schlyter a proposé une classification de descriptions syntaxiques et sémantiques détaillées. Particulièrement, les adverbes de relation ou d'énonciation et les adverbes restrictifs sont très caractéristique qu'ils représentent une information extérieure comme le contexte linguistique, l'acte d'énonciation dans une phrase.

En cas de point de vue pragmatique, on étudie le rôle des adverbes selon le contexte ou les éléments de linguistique extérieure. Guimier a analysé des adverbes dans l'incidence syntaxique et la portée sémantique, Ducrot et Nølke a proposé les adverbes contextuels comme classement des adverbes.

En conclusion, les propriétés des adverbes sont très variées avec la subjectivité linguistique. Il faudrait étudier plus profondément les adverbes en -ment dans la prise en compte des aspects pragmatiques.